
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재해사고는 여전히 심각. 2024년 1월~9월까지 재해자 수 105,119명. 사망자 1,167명. 사망원인은 떨어짐, 끼임, 교통사고, 부딪힘, 화재·폭발·파열 순서. 예방하고 조심하면 안 일어날 사고가 대부분.

“우연한 사고는 없다. 경영자는 위험성에 대한 검토와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사가 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.”

글·그림 정동섭



